

“송천역 폐역사부지 변전소 이전을”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 전주시에 촉구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전주시에 대해 송천역 폐역사부지 변전소 이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혜숙 시의원(송천1동·사진)은 18일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전이 송천역 폐역사 부지로 변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 전자파 노출 등을 우려하는 많은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전주시가 지역 협안사업으로 변전소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송천역 변전소 갈등의 시

초는 지난해 한전 측이 154KV 송전 변전소 건립 사업 부지를 송천 폐역사부지로 최종 결정함에 이어 전주시가 건축허가를 구청 과장 전결로 처리해주면서 불거졌다”며 “지역민과 협의도 없이 전주시가 한전의 송천역 폐역사부지에 변전소 건축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또 “대규모 주택 밀집지역인 송천역 폐역사부지 변전소 건립으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주시



와 예코 측에 민원과 진정서를 수차례 넣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지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전 송천변전소 건립 사업은 1만3000여 가구, 인구 3만3000여 명이 거주하는 송천동 예코시티는 물론 전주 북부권 지역의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인데도 한전은 주민공청회도 한 번 없이 비용절감과 경제논리만 내세워 송

천역 폐역사부지에 변전소 건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역민들은 예코시티와 전주 북부권의 중심에 자리한 송천역 폐역사부지에 고압 변전소 건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송천역 폐역사 변전소 건립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한전과 예코, 전주시, 시의원,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6자 협의회를 구성, 2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역민들이 2차례 1951명의 반대 서명부가 포함된 민원을 접수,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는데도 전주시의 문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김영재 기자

차량 흠쳐 200km 질주한 겁없는 10대

부산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흠쳐 타고 무주까지 200km를 질주한 겁없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무주경찰서는 18일 부산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흠쳐 달아난 혐의(차량절도)로 이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4시13분께 부산시 진포동 한 상가 앞에 주차된 B(46·여)씨의 SM3 차량(시가 400만원 상당)을 흠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또 이날 부산에서 흠친 박씨 차를 타고 무면허 상태로 무주까지 200k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군은 이날 박씨가 차에 열쇠를 꽂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흠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경찰조사에서 “차량 내부에 차기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운전이 해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차를 흠쳤다”고 진술했다. /안진수 기자

상습 무전취식 40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경찰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에 대해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처를 베풀었다.

1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시내 편의점 등에서 19만2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를 받고 있는 A(43)씨에 대해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틀간 전주시내 편의점에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을 속여 흠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도 관계가 끊어져 노숙 생활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재판에 넘기는 대신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로 신병을 인계했다. /박용주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18일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지역 강소기업인 ㈜휴테크와 ㈜인텍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방문

지식산업센터 내 휴테크·인텍 근로자 격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작지만 강한 지역기업 기 살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시장은 18일 전주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지역 강소기업인 ㈜휴테크(대표 김춘복)와 ㈜인텍(대표 이창선)을 방문,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직접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일정이다.

김 시장이 이날 방문한 전주지식산업센터는 5325㎡ 대지에 연면적 1만 6846㎡(지하 1층~지상 5층)로 지난 1997년 12월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이다. 현재 25개 업체 150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휴테크는 지난 2005년 창립돼 현재 세계최고 수준의 광고 및 홍보용 특수 패넬을 제작해 일본과 미국, 유럽, 뉴질랜드 등

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전국버스승강장 태양열 라이트패넬 설치, 지하철 LED실내 이정표 라이트패넬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어 방문한 ㈜인텍은 지난 2013년 창립돼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NET)인증과 성능인증(EPC)을 받고, 현재 12명의 근로자들이 패션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이 기업은 올해를 더 높이 더 멀리 뛰기 위해 몸을 움츠렸던 개구리가 비상하는 해로 정하고, 베트남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으로 매출목표를 150억원으로 정하고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김영재 기자

CCTV카메라 흠친 30대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원룸 건물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흠친 혐의(절도)로 황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15분께 전주시 산정동 한 원룸 1층에서 차량손괴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 26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해당 CCTV 카메라를 가져다 자신의 집에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이혼한 전 남편 어머니

통장 흠친 60대女 입건

이혼한 전 남편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 통장과 도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18일 이혼한 남편의 어머니 통장을 훔쳐 수백만원의 인출한 혐의(절도)로 전모(6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2시께 장수군 계북면의 전 시어머니의 집에서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쳐 진안과 경남 밀양, 부산 등에서 총 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나름대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진안과 경남 밀양, 부산 시를 돌며 5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을 한 뒤 일정한 수입이 없어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안진수 기자

양영환 전주시의원, 남부시장 가설매장 노점상 활성화 요구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남부시장 가설매장 노점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금의 남부시장의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전주천변을 따라 설치된 188개 가설점포 중 54개 점포에 ‘징검다리 마켓’이라는 이름의 예술인 거리 조성 계획을 추진, 노점상들에게는 빈 점포에도 입점을 불허해 노점상들은 생계를 위해 인근 새벽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전주시가 남부시장 청년몰의 성공에 도취된 사이 일대 새벽시장은 차도를 점령한 노점과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남부시장 노점상 관리를 위한 근원적 대책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특히 “행정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 보듯 방치하고 전주시 전통시장의 대표인 남부시장 가설점포 노점상들은 이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 서서화동에 위치한 예술인마을도 홍보 부족으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시장 가설점포까지 30m에 이르는 예술인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의 실효성 문제도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청년몰의 성공이 전주시가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